

완벽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한 식당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형 튜브를 이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중인 한 식당이 화제가 되고 있다.

매릴랜드주 오션시티에 있는 한 해산물 식당은 조만간 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종전처럼 식당 내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될 경우를 대비해 번뜩이는 아이디어 장치를 개발했다.

이 식당은 대형 튜브에 바퀴를 달아 이동이 가능하게 만든 테이블에 손님이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튜브의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이 식당은 특히 바닷가 근처의 식당으로, 손님들이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야외 테이블을 손님들이 선호하기에 이 아이디어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대형 튜브의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튜브당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식당 업주인 손 할몬은 "직원들과 함께 여러차례 예행 연습을 하면서 주정부가 예전처럼 식당 내에 손님들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날을 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대형 튜브테이블을 제작한 회사 측은 "우리는 이벤트 회사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벤트 행사가 예전 같지 않다" 며 "하지만 사람들에게 코로나 사태에도 이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이동식 대형 튜브테이블을 제작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튜브테이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다', '식당이 정상영업을 하면 가봐야겠다' 며 튜브테이블에 호기심을 보였다.

'수박 복면' 쓰고 편의점 습격한 도둑들

'수박 복면' 을 쓰고 편의점을 습격한 일당의 모습을 담은 CCTV 화면이 공개됐다.

1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9시 35분경 버지니아주 루이지아의 한 편의점에 수박의 속을 파내는 부분을 뚫은 '수박 복면' 을 쓴 일당 2명이 유유히 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편의점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용의자 두 명 중 한 명이 체포됐다.

루이지아경찰청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는 범죄 당시 20세였던 저스틴 로저로, 경찰은 절도 및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또 음주가 가능한 최소 연령이 만 21세인 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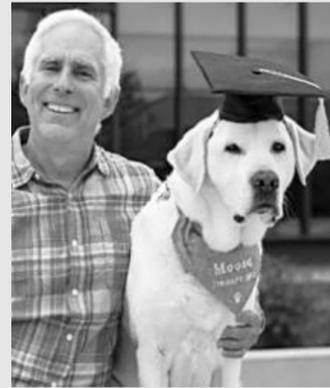
해당 편의점을 자주 방문한다는 한 고객은 "수박 복면이 혁신적이긴 하지만 말도 안 된다. 수박을 머리에



쓰기 위해 속 알맹이를 모두 비워야 했을 텐데, 이는 미친 짓" 이라며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너무 멍청하다" 고 덧붙였다.

한편 수박 마스크를 쓴 줌도둑 두 명이 편의점에서 어떤 물건을 훔쳤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또다른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명예박사 학위 받은 심리 치료견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던 치료견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아 화제이다.

18일 CNN은 버지니아 공대 수의대에서 생

활하고 있는 치료견 무스(8)가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졸업식에서 수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인 무스는 2014년부터 이 대학 쿡 카운셀링센터에서 치료견(therapy dog)으로 활동해 왔다. 치료견은 훈련을 거쳐 양로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병원 등에 투입돼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 치료를 돕는 개를 말한다.

학교 측에 따르면 무스는 교내 동아리 행사, 오리엔테이션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본업인 학생들의 불안, 트라우마 치료 등을 돕는 일을 담당해 왔다.

쿡 카운셀링센터의 카운셀러이자 견주인 트렌트 데이비스 박사는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른 형태의 정신적인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동물 보조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면서 "무스는 지난 6년 동안 7,500번 이상의 카운셀링과 수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줬다" 고 평가했다.

특히 학교 측은 총 4마리의 치료견을 학생들 상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 무스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지난해에는 버지니아 수의대 동물영양사까지 받았다.

데이비스 "정신적인 불안을 느끼는 많은 학생과 직원들에게 무스는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면서 "안타깝게도 무스는 지난 2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아 방사선 치료를 받고있지만 여전히 평소 행복했던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 명예박사 학위로 딱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많은 간식과 해변에서의 수영을 학습고대하고 있다" 며 웃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가나 세무 & 보험의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가나 세무보험
GANA TAX & INSURANCE

실업수당 신청 • 긴급재난용자 신청 • PPP(급료보호 프로그램) 신청

**가나 세무 & 보험은 고객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세금과 보험을 함께 도와드리는 가나 세무 & 보험
보험고객은 세금수수료 50% 할인해 드립니다.
65세 이상 고객의 세금보고는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사업소득 제외)

세금보고 / 법인설립 / Sales Tax
세무감사대행 / 회계업무 / Payroll Service
오바마 케어 보험 / 메디케어 보험 / 기타 보험

세금보고마감 3개월 연장 : 7월 15일까지

김선광 (Kayson Kim)
40년 실무경험의 공인세무사
beachgana@gmail.com

O : 714.827.0707
C : 714.588.3355

3008A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